
주요국 예산안 - 미국

2017. 6.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최승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윤모 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6
3. 예산안 내용	7
가. 세입	7
나. 세출	8
4. 주요 재정정책	12
가. 건강보험 개혁	12
나. 복지 정책	12
다. 인프라 투자	14
라. 2-페니플랜 (2-penny plan)	14
마. 기타 정책	16

미 국

□ FY2018 : 2017년 10월 ~ 2018년 9월

□ 출처 :

-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7.1.24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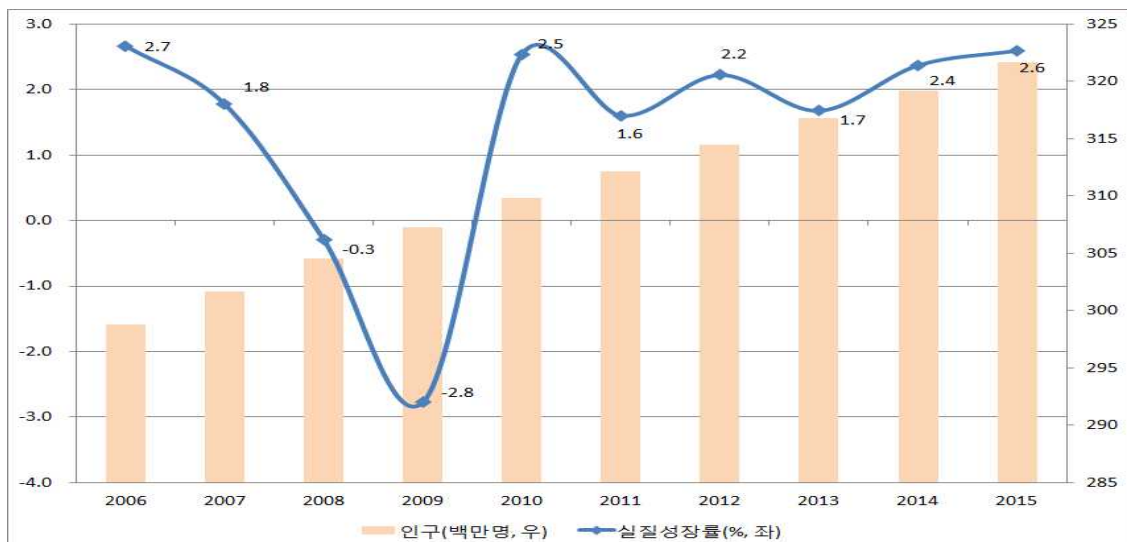
□ 환율 : 1USD = 약 1,160.50원 (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5년 경상GDP 18조 366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10.3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비율(명목) : 2015년 기준 28.0% (우리나라는 84.8%)

□ 인구 : 3억 2,170만명 (2015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7년, 2018년의 실질성장률은 각각 2.3%와 2.4%로 장기적으로는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8 재정적자는 GDP대비 2.2%로 전년(6,030억달러)대비 27% 감소한 4,440억달러(GDP대비 2.2%) 전망
- (국가채무) FY2017 비정부부문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4조 8,240억달러)대비 3.6% 증가한 15조 3,530억달러(GDP대비 76.7%) 전망

□ 예산기준

- 미국의 위대함(American Greatness)을 위한 새로운 기반 및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대외정책, 정부의 규제 제한 및 간섭 최소화, 재정 균형 기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8 세입계획은 전년 대비 5.6%(1천 940억달러) 증가한 3조 6,540억달러(GDP 대비 18.3%) 전망
- (지출) FY2018 총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약 0.8%(320억달러) 증가한 4조 940억달러(GDP 대비 20.5%) 편성 (순이자지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3,150억달러)

□ 주요 재정정책

- 오바마 케어 폐지 및 대체
- 국경안보 강화 및 공공안전 증대
- 유급 육아 휴가(paid-parental leave) 프로그램 신설
- 1조달러의 민관 인프라 투자 지원 계획
- 세계 기후변화 및 해외 군사지원 조정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¹⁾

-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은 올해('17년)와 내년('18년) 각각 2.3%와 2.4%로 장기적으로는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CBO의 「'17~'27년 예산·경제 전망²⁾」에서는 '17년의 경제성장률을 예산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18년에는 1.9%, '19~'20년에는 1% 중반까지 하락한 후 장기적으로는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FY2018 경제전망은 CBO와 FRB 등 다른 기관에 비해 0.3~0.5%p 정도 비교적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경향이 있음 (표 1-1 참고)
 - * Federal Reserve Median Projection: ('17) 2.1% → ('18) 2.1%
 - * Blue Chip Survey³⁾: ('17) 2.1% → ('18) 2.4%

<표 1>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7
실질 GDP ¹⁾	2.8	2.2	2.4	2.6	1.6	정부	2.3	2.4	2.7	2.9	3.0	3.0
						CBO	2.3	1.9	1.6 ²⁾		1.9 ³⁾		

- 주: 1. 전년대비 변화율
 2. 2019~2020년 평균 성장률
 3. 2021~2027년 평균 성장률

출처: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CBO, 2017.1

- (노동시장) 2017년 실업률은 지속 감소하여 2017년에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62.7%('15년) → 62.8%('16년) 수준에서 안착하였으나,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하락할 것으로 보임

1)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2)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CBO, 2017.1 (2016.1.17)
 3)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 한 수치

* 실업률은 5.0%(2015년) → 4.7%(2016년)로 하락하였으며,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9.3% → 2010년에 9.6%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음

□ (물가) 물가는 '16년 1.3%에서 '17년에 2.6%로 상승한 이후 장기적으로 2.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금융위기 이후, 물가 수준이 2차 세계대전 후의 평균수치(post-World War II) 보다 낮아졌으며 변동이 심한 음식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지수에서도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소비) 소비는 2016년 경제성장에서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경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음

<표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GDP ¹⁾	2.6	1.6	2.3	2.4	2.7	2.9	3.0	3.0	3.0	3.0	3.0	3.0	3.0
실업률 ²⁾	5.3	4.9	4.6	4.4	4.6	4.7	4.8	4.8	4.8	4.8	4.8	4.8	4.8
CPI-U ¹⁾	0.1	1.3	2.6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국채 91일물 ³⁾	*	0.3	0.8	1.5	2.1	2.6	2.9	3.0	3.0	3.1	3.1	3.1	3.1
국채 10년물	2.1	1.8	2.7	3.3	3.4	3.8	3.8	3.8	3.8	3.8	3.8	3.8	3.8

* 0.05 percent or less

주: 1. 전년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Analytic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FY2018 세입은 전년대비 5.6%(1천 940억달러) 증가한 3조 6,540억달러 (GDP 대비 18.3%) 전망

□ (재정지출) FY2018 총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약 0.8%(320억달러) 증가한 4조 940억달러(GDP 대비 20.5%) 편성 (순이자지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3,150억달러)

- (재량지출) FY2018 재량지출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조 2,440억달러 계획
 - 국방분야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6,430억달러, 비국방분야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6,01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FY2018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조 5,350억달러 전망
 - 메디케어는 1.9% 감소할 전망이나, 사회보장지출과 메디케이드는 각각 6.2%, 6.9% 증가,
 - (기타 의무지출)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를 위한 준비금(allowance)에 50억달러 소요 계획
- (재정수지) FY2018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6,030억달러)대비 27% 감소한 4,440억달러(GDP대비 2.2%) 전망
 - FY2019에는 다시 GDP대비 2.5%(5,260억달러)로 증가하나, FY2020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수지가 개선되어 FY2027에 흑자(160억달러) 전환 계획
- (국가채무) FY2017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4조 8,240억달러)대비 3.6% 증가한 15조 3,530억달러(GDP대비 76.7%) 전망
 - * 국가총채무는 비정부부문소유채무와 정부부문 소유채무(5조 7,400억달러)로 구분
 - FY2017 GDP 대비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77.4%를 기록한 후, FY2018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
 - FY2024에 처음으로 60%대로 진입할 전망이며, 향후 10년(~FY2027)안에 50% 후반대로 하락할 전망

<표 3>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예산총량 (십억 달러)												
수입	3,267	3,460	3,654	3,814	3,982	4,161	4,390	4,615	4,864	5,130	5,417	5,724
지출	3,854	4,062	4,094	4,340	4,470	4,617	4,832	4,933	5,073	5,306	5,527	5,708
재정적자	587	603	440	526	488	456	442	319	209	176	110	-16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4,168	14,824	15,353	15,957	16,509	17,024	17,517	17,887	18,150	18,379	18,541	18,575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7.8	18.1	18.3	18.2	18.1	18.0	18.1	18.1	18.2	18.2	18.3	18.4
지출	20.9	21.2	20.5	20.7	20.3	20.0	19.9	19.4	18.9	18.9	18.7	18.4
재정적자	3.2	3.1	2.2	2.5	2.2	2.0	1.8	1.3	0.8	0.6	0.4	-0.1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7.0	77.4	76.7	76.2	75.1	73.7	72.2	70.2	67.8	65.3	62.7	59.8

주: 2016년 실적규모는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CBO, 2017.1」 인용
출처: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참고 1> CBO 경제 및 재정전망 ('17.1월)

- (경제전망) '17년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로 상승하나, '18년에는 1.9%로 하락할 전망('19~'20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1.6% 전망)

<표 4> CBO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2020	2021~2027
	실적	추정	전망		평균 성장률 (projected)	
실질GDP ¹⁾	1.9	1.8	2.3	1.9	1.6	1.9
실업률 ²⁾	5.3	4.9 ³⁾	4.6	4.4	4.7 ⁴⁾	4.9
CPI-U ¹⁾	0.4	1.8 ³⁾	2.3	2.3	2.4	2.4

1) 전년대비 변화율 / 2) 연평균 / 3) 2016 실적치

4) 2020년 4분기 수치 / 5) 2027년 4분기 수치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2017.1.

- (재정전망) '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는 '16년에 3.2%('15년: 2.5%)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⁴⁾
 - (세출) '17년 연방지출은 전년 (실적)대비 2.8% 증가한 3조 9천6백억달러, GDP 대비 20.7% 전망
 - (세입) '17년 연방세입은 전년 (실적)대비 4.2% 증가한 3조 4천억달러, GDP 대비 17.8% 전망
 - (국가채무) 향후 몇 년간 재정적자는 감소하나,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정부부문)도 '17년에 77%에서 '27년에 약 89%까지 증가할 전망

<표 5> CBO 재정전망

재정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적	전망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7.8	17.8	18.1	18.1	18.1	18.1	18.1	18.1	18.2	18.2	18.3	18.4
지출	20.9	20.7	20.5	21.0	21.3	21.7	22.3	22.3	22.3	22.8	23.1	23.4
재정적자	3.2	2.9	2.4	2.9	3.2	3.6	4.2	4.2	4.1	4.5	4.8	5.0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7.0	77.5	77.4	77.9	78.8	79.9	81.3	82.6	83.8	85.3	87.0	88.9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2017.1.

4) '16년 초 기준선 전망 당시 '16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를 2.9%(5천4백억달러 수준)로 전망

2. 예산기조

-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기반(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이란 타이틀을 중심으로 8대 개혁 과제 제시
 - ① 보건 개혁, ② 세제 개혁 및 간소화, ③ 이민 개혁, ④ 연방지출 감축, ⑤ 규제 철폐(roll back), ⑥ 에너지 개발, ⑦ 복지 개혁, ⑧ 교육 개혁
- 올해 초(2018년 3월 16일)에 발표된 FY2018 재량지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음
 - 자국민의 욕구(needs)를 최우선 순위로 언급하면서 ‘안보가 없으면 번영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음⁵⁾
 - * 이번에 발표된(2017.5.23.) 예산안은 의무지출과 3월 16일에 발표된 재량지출 예산안을 모두 포함한 종합예산안의 형식으로 구성

– ‘3.16. 발표’ 2018 예산안 청사진 서문 (원문) –

<Trump’ s Budget Blueprint for 2018>

“Our aim is to meet the simple, but crucial demand of our citizens- a Government that puts the needs of its own people first”

“A budget that puts America first must make the safety of our people its number one priority- because without safety, there can be no prosperity”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대외정책, 정부의 제한적 규제 최소화, 재정균형 기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의 재정보장(fiscal security)과 안전(safety)의 성취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지원하는 창조성(creativity)과 추진력(drive)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음
- 국경 안보, 일자리 창출, 국가의 이익과 납세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민 정책 및 의료보호 관련 주정부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새로운 연방주의 기틀 마련

5) 재정동향 2017년 4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8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5.6% 증가(1,946억달러 ↑)한 3조 6,540억달러(GDP대비 18.3%) 전망

○ 올해(FY2017)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약 5.9% 증가(1,917억달러 ↑)한 3,460억달러 (GDP대비 17.1%)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향후 10년간(~FY2027) 18.0%~18.4%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주요 세입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GDP대비 개인소득세: ('16) 8.4% → ('17) 8.7% → ('18) 9.2% → ('27) 9.9%

<표 6>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적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개인소득세	1,546	1,660	1,836	1,935	2,044	2,167	2,293	2,428	2,572	2,723	2,884	3,062
법인세	300	324	355	375	401	400	414	425	439	455	475	497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1,115	1,174	1,224	1,277	1,335	1,413	1,488	1,557	1,637	1,717	1,807	1,894
소비세	95	87	106	107	110	99	101	104	106	109	113	117
유산세 및 증여세	21	23	24	26	28	29	31	33	36	38	40	43
관세	35	34	40	42	43	44	46	50	53	56	60	65
기타수입												
*연방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포함	156	157	134	111	107	109	120	132	141	151	158	168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충당금	-	-	-55	-60	-85	-100	-105	-115	-120	-120	-120	-120
총 재정수입	3,268	3,460	3,654	3,814	3,982	4,161	4,390	4,615	4,864	5,130	5,417	5,724
GDP대비 %	17.8	18.1	18.3	18.2	18.1	18.0	18.1	18.1	18.2	18.2	18.3	18.4

*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출처: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나. 세출

- FY2018의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4조 944억달러(GDP 대비 20.5%) 전망⁶⁾
 - GDP 대비 전년 예산안 규모(21.2%)보다 0.7%p 감소한 수치이며 보건 분야(Health),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24.7%)등을 합한 지출이 총 지출의 52%를 차지
 - 주요 부처 중 가장 많은 지출 규모를 보이는 기관은 보건·복지부⁷⁾이며, 사회보장국, 국방부, 재무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1조 69.7억달러) 1,069.7(10억달러)
- 주요 기능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국방) 전년대비 8.3% 증가한 6,525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6%
 - * FY2017 국방예산안은 오바마 정권의 마지막 해의 증가율(2.1%)보다 크게 증가
 - FY2018 재원배분에서 사회보장 지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음
 - (보건) 전년대비 2.5% 감소한 5,321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3%
 - 건강관리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등을 포함한 보건분야 하위 프로그램 모두 감소
 - (사회보장⁸⁾) 전년대비 6.1% 증가한 1조 104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24.7%
 - 예산외(Off-budget) 지출비중이 사회보장 총지출의 96.1%(9,693억달러)를 차지
 - (메디케어⁹⁾) 전년대비 1.9% 감소한 5,884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4.4%
 - 메디케어 클레임(appelas) 및 등록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1억 4,500만달러 소요 전망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전년대비 약 34.3% 감소한 965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2.4%

6)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2),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7)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8)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9)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의료지원 제도

<표 7> FY2018 예산안 기능별(Function)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6	2017 (a)	2018 (b)	금액 (b-a)	증가율
Defense	593,372	602,783	652,570	49,787	8.3
International Affairs	45,306	56,413	55,473	-940	-1.7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30,174	31,101	30,645	-456	-1.5
Energy	3,719	6,020	2,731	-3,289	-54.6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9,534	40,615	37,546	-3,069	-7.6
Agriculture	18,342	21,100	26,632	5,532	26.2
Commerce and Housing Credit	-34,077	-17,675	-24,845	-7,170	40.6
Transportation	92,566	93,780	91,827	-1,953	-2.1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20,140	22,067	23,127	1,060	4.8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109,737	146,996	96,464	-50,532	-34.4
Health	511,317	545,665	532,052	-13,613	-2.5
Medicare	594,536	599,677	588,411	-11,266	-1.9
Income Security	514,139	513,910	495,889	-18,021	-3.5
Social Security	916,067	951,854	1,010,388	58,534	6.1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174,516	174,957	177,897	2,940	1.7
Administration of Justice	55,768	67,808	64,984	-2,824	-4.2
General Government	22,674	26,254	27,173	919	3.5
Others	144,782	178,898	205,486	26,588	14.9
재정지출 (GDP대비 비율)	3,852,612 (20.9)	4,062,223 (21.2)	4,094,450 (20.5)	32,227	0.8

출처: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2),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표 8> 항목(Category)별 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585	594	643	665	670	667	662	665	679	693	709	722
비안보	600	619	601	567	537	506	485	464	455	446	437	429
소계: (GDP대비%)	1,185 (6.4)	1,213 (6.3)	1,244 (6.2)	1,232 (5.9)	1,207 (5.5)	1,173 (5.1)	1,148 (4.7)	1,129 (4.4)	1,134 (4.2)	1,139 (4.0)	1,145 (3.9)	1,151 (3.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910	946	1,005	1,070	1,137	1,205	1,279	1,360	1,446	1,535	1,628	1,725
메디케어	588	593	582	646	700	756	851	882	910	1,017	1,085	1,166
메디케이드	368	378	404	423	439	460	467	477	490	499	518	524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560	656	570	603	609	622	658	653	649	667	687	678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충당금	-	-	-30	-30	-90	-130	-140	-155	-160	-170	-170	-175
인프라 이니셔티브 충당금	-	-	5	25	40	50	40	20	10	5	5	5
소계 (GDP대비%)	2,427 (13.2)	2,573 (13.4)	2,535 (12.7)	2,736 (13.1)	2,835 (12.9)	2,963 (12.8)	3,156 (13.0)	3,237 (12.7)	3,345 (12.5)	3,553 (12.6)	3,754 (12.7)	3,919 (12.6)
순이자 (GDP대비%)	240 (1.3)	276 (1.4)	315 (1.6)	371 (1.8)	428 (1.9)	481 (2.1)	528 (2.2)	567 (2.2)	595 (2.2)	613 (2.2)	629 (2.1)	639 (2.1)
총재정지출	3,853	4,062	4,094	4,340	4,470	4,617	4,832	4,933	5,073	5,306	5,527	5,708
GDP대비 %	20.9	21.2	20.5	20.7	20.3	20.0	19.9	19.4	18.9	18.9	18.7	18.4

출처: Proposed Budget by Category (Table S-4.),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표 9>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2016 승인규모	2017 추정	2018 예산요청
내각 부처 (Cabinet Departments)			
농무부 (Agriculture)	25.2	22.7	18.0
상무부 (Commerce)	9.4	9.2	7.8
Census Bureau	1.4	N/A	N/A
국방부 (Defense)	521.7	549.1	574.5
교육부 (Education)	68.3	68.2	59.0
에너지부 (Energy)	29.6	29.7	28.0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2.5	12.5	13.9
보건복지부 (Health & Human Services)	84.6	78.0	65.3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41.1	41.3	44.1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37.5	46.9 ¹⁾	40.7 ¹⁾
내무부 (Interior)	13.2	13.2	11.7
법무부 (Justice, DOJ)	28.7	28.8 ²⁾	27.7 ²⁾
노동부 (Labor)	12.2	12.1	9.7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37.9	39.7	28.2
교통부 (Transportation)	14.3	18.6	16.2
재무부 (Treasury)	12.6	12.6 ²⁾	12.1 ²⁾
보훈부 (Veterans Affairs)	71.6	74.5	78.8
주요 정부 기관 (Major Agencies)			
Corps of Engineers	6.0	6.0	5.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1	8.2	5.7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6	0.2	0.5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19.3	19.2	19.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5	7.4	6.7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9	0.8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9.3	9.0	9.1
Other Agencies	20.6	20.4	17.9
Allowances	-	-13.6	-
합계	1,080.2	1,079.6	1,065.0

1) HUD Receipts(\$9.5 bn) 제외

2) Offsets 제외

출처: (Table S-11),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7.5.23

4. 주요 재정정책

가. 건강보험 개혁

- 오바마 케어 폐지 및 대체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250억달러, 이듬해(2019년)에는 300억달러의 초기 비용이 전망됨¹⁰⁾
 - 동 법의 폐지(repeal) 및 대체(replace)로 인해 초기 2년간 총 550억달러의 투입 비용 소요가 전망되지만, 이후 감축효과가 발생하여 향후 10년('18~'27)간 2,500억달러의 적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인 트럼프 케어(AHCA¹¹⁾)의 수정법안(H.R. 1628)이 2017년 5월 4일 하원을 통과하였음¹²⁾
 - 지난 3월 24일, 트럼프 케어 원안은 대통령의 표결 철회로 무산된 바 있음
 - * 초당파 기구인 책임연방위원회(CRFB)에 따르면, 수정법안은 향후 10년(2017년 포함)간 지출 및 조세보조 축소 등을 통해 1,190억달러의 적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메디케이드 개혁(금전적 혜택 재정비 및 연방과 주정부의 예산 안정을 목표로 함)을 통해 향후 10년간 6,100억달러 절감안 제시
 - 동 개혁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의 비용 측면에서 주정부의 재량권을 확대
 - 그 결과, 각 주정부는 적합한 개인별 솔루션을 설계함으로써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나. 복지 정책

1) 복지 개혁

- 트럼프 정부는 복지 시스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2,720억달러의 적자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10) Mandatory and Receipt Proposals (Table S-6.),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11) American Health Care Act of 2017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17년 5월호', 2017.05.31

- 빈곤가구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¹³)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10%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의 비상 기금(contingency fund) 또한 경기에 대응(counter-cyclical)한 주정부로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유로 감축 제안
-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¹⁴),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의 수혜대상 자격 관련 허점(eligibility loopholes)을 차단하고, 신체 건강한 성인(able-bodied adults)의 경우 일을 해야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자녀세액공제(CTC¹⁵) 및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사회보장번호(SSN¹⁶)가 있는 국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
 - CTC와 EITC의 2018년도 예산 규모는 각각 247억달러, 18억달러로 전망됨
-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개혁을 위한 준비금(allowance)으로 2018년도에 1억달러 배정, 이후 향후 5년간 매년 1억달러 지출 계획
 - 연방 장애 프로그램 개혁으로 인한 총 절감효과는 향후 10년간 약 490억달러로 수준으로 전망되며, 동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LFP¹⁷)을 증진시킬 계획

2) 가정 및 아동(Families and Children) 지원

- 유급 육아 휴가(paid-parental leave)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9년도까지 매년 10억달러 배정. 이후 매년 20억달러씩 향후 10년간 총 190억달러 지출 계획
- 동 예산은 남성과 여성 모두(입양 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 후 급여 걱정 없이 가족 시간을 통한 유대 관계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정책은 실업급여 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으로, 동 정책이 입법화 되면 주정부가 유급육아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며 각 지역별 경제와 노동환경에

13)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4)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알려져 있음)

15) Child Tax Credit

16) Social Security Number

17) Labor Force Participation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받게 됨

- 2017년 말에 만료되는 저소득층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¹⁸) 2년 연장하였으며, 2018년에 4천 9백만달러 배정
 - 한편, 동 프로그램(CHIP)이 포함된 보건개혁(health reform)을 통해 동 예산은 2019년까지 총 1억 7천만달러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다. 인프라 투자

- 1조달러의 민관 인프라 투자 지원 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FY2027) 연방정부 직접 사업에 총 2천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며, 2018회계연도에는 50억달러 배정
 -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장기개혁의 일환으로서 인프라 사업의 전반적 통제, 자금배정, 사업 추진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노면 교통 시스템(surface transportation), 공항, 수도, 항만, 폐수 시스템, 광대역 시스템(broadband) 등 주요 인프라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실시간 상황판(dashboard) 등을 통한 투명한 인·허가 절차 등도 계획
 - 미 연방항공청(FAA¹⁹)의 항공 교통관제 기능(air traffic control)을 2021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독립적인 비정부 조직으로 이관 계획

라. 2-페니 플랜 (2-penny plan)

- 크게 증가한 국방예산의 증가분은 비국방예산(재량지출)의 감소를 통하여 상쇄할 계획이며, 균형재정의 일환으로 비국방지출을 매년 2%씩 감소하는 2페니 플랜(2-penny plan)을 제시하고 있음
 - 국방예산은 전년 예산(CR²⁰) 대비 520억달러 증가한 총 6,390억달러 배정(해외

18)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19)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비상작전 포함 OCO²¹⁾)하여 총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페니플랜을 이행할 경우, 2027년까지 현 비국방예산 규모(5,190억달러 / GDP 대비 2.7%)가 3,850억달러(GDP 대비 1.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참고 2> 페니 플랜⁵⁾

□ 페니 플랜(Penny Plan)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작년(2016년) 대선 후보시절 제시했던 정책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전년대비 1% 감축하는 예산집행 방법을 의미²²⁾

* 페니플랜은 미국 화폐 중 최소단위 주화인 1센트(1달러의 1%)를 의미하는 penny(페니)에서 따온 명칭임 → 2-penny는 2% 감축을 의미

○ 이는 전체 연방예산중 세출예산법(annual appropriations law)에서 규정하는 비국방(non-defense)지출 프로그램 예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 많은 재정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었는데, 이에 트럼프 후보는 대응방안으로서 페니플랜을 언급함

○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의 페니플랜을 적용할 경우 '26년에 비국방지출이 4,690억달러까지 감소하고, CBPP²³⁾에 의하면, '18년에 동 지출의 GDP대비 비중이 사상최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지속 감소하여 '26년에는 GDP대비 2.0%(약 3,800억달러)까지 하락할 전망

※ 대선 기간 당시의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의 페니플랜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20) Continuing Resolution

21)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22) '윤성주·구윤모, 『미국재정(페니플랜/Penny Plan)』,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에서 발췌

23)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예산정책우선센터, 미국 진보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

마. 기타 정책

1) 국경 안보 강화 및 공공안전 증대

- 이민 단속 및 공공안전 등을 위해 국토 안보부(DHS)에 441억달러, 법무부(DOI)에 277억달러 배정
 -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설치 계획, 설계 및 건축 등을 포함한 최우선 전술 인프라(high-priority tactical infra.)와 국경 안보 강화 기술에 26억달러 배정
 - * 동 예산은 2017년 1월 25일 대통령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을 근거로 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마약 및 불법 물품의 유입·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경 안보 강화 및 이민 단속 집행을 담당할 국경순찰대(500명)와 이민세관단속 집행관(1,000명) 등의 신규 모집에 3억달러 배정
 - 이 밖에 국토안보부에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 수송, 추방 관련 예산에 전년 예산(CR24)에 15억달러를 추가한 규모를 배정하였으며, 신규 이민 재판담당관 75명 등이 포함된 법무부의 공공안전 예산에 약 2억달러 배정
 - 연방 네트워크 및 주요 인프라 보호(security)를 위한 사이버공간 지킴이(cyberspace safeguard) 예산을 위해 15억달러 배정

2) 국제 관계 조정

- 미 의회의 벵가지(Benghazi) 특별조사위원회²⁵⁾의 권고에 따라 대사관 신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에 22억달러 배정
-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 정책(QME²⁶⁾) 유지 지원 등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security assistance)을 위해 31억달러 배정

24) Continuing Resolution

25) Benghazi Accountability Review Board: 2012년, 리비아의 북동부 도시인 벵가지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미 하원의 특별 조사위원회

26) Qualitative Military Edge: 이스라엘의 대 아랍 국가들에 대한 질적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

- 세계 기후변화 이니셔티브(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폐지(eliminate)
 -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자금 지원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유엔 기후변화 프로그램 관련 지원 중단 계획
- 현재 군사지원(foreign military assistance) 방식을 보조금(grants) 체제에서 차관(loan)형식으로 전환 계획
- 유엔 평화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UN 및 유엔 산하기관(affiliated agencies)에 대한 자금 지원 감축
 - 향후, 미국은 UN의 평화유지비용 예산의 25%를 초과하는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